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병준¹ · 김정윤¹ · 황신우¹

¹대구보건대학교, 조교수

The Ethical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PR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Effects on Bio-medical Ethics

Byung Jun, Park¹ · Jeong Yun, Kim¹ · Shin Woo, Hwang¹

¹*Daeg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7권 제2호 2023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2, June. 2023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병준¹ · 김정윤¹ · 황신우¹

¹대구보건대학교, 조교수

The Ethical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PR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Effects on Bio-medical Ethics

Byung Jun, Park¹ · Jeong Yun, Kim¹ · Shin Woo, Hwang¹

¹Daeg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students' ethical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ttitude on bio-medical ethics. **Method :**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bio-medical ethics by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257 students participating in bio-medical ethics education from December 15, 2019 to January 15, 2020. **Results :** The subjects' ethical disposition were 42.21±5.18 for idealism and 38.91±5.96 for relativism. The average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3.72±0.43, and the CPR attitude was 3.83±0.47. The overall average of bio-medical ethics was 3.17±0.44. The relationship between idealism ($r = .54$), relativism ($r = .28$), professional self-concept ($r = .39$), CPR attitude ($r = .26$), and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bio-medical ethics were idealism ($\beta = .04$)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eta = .18$). **Conclusion :**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mprove bio-medical ethics cap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First, comprehensive education on ethical principles and concepts should be provided in ethical decision-making situations. Second, educational content that can foster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idealistic ethical disposition should be included to understand ethical beliefs. It is necessary to apply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simulation, discussion, and problem-solv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o nursing student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and judge bio-medical ethics situations.

Key words : Ethics, Nursing Students,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발전하는 보건의료에 따라 인간의 건강증진과 생명 연장 등에 관심이 증가함과 더불어 의료인에게는 또 다른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1].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생명의료윤리는 철학, 윤리학, 인문학 및 의학 등과 더불어 인간생명에 관한 다양한 윤리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학문 영역으로 각광받게 되었다[2]. 이처럼 생명의료윤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및 권리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3].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대상자에게 질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은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 감소, 직무 만족도 저하 및 이직 의도로 이어져 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4].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도 임상실습 시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여부는 졸업 후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전문간호실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 때부터 생명의료윤리의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5].

윤리적 성향은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바람직한 것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다. Forsyth[6]는 인간은 윤리적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행동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의 윤리적 성향은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이론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의는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결과보다 행동에 의해 판단하는 성향을 말하며,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고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주의는 상황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하려는 성향을 말하며,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

학 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를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7,8]. 윤리적 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된 바 있어[8], 간호사의 윤리적 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생명의료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윤리적 성향을 높이는 일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문직에 관한 지식과 가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립된다[9]. 간호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직업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가지는 느낌 및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직종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주어진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신감이 향상되어 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10]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술기로 의료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의료인도 윤리적 갈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수행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11,12].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므로, 교육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13].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죽음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 또는 죽음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5,14-16].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과 심폐소생술 태도와 관련된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및 생명의료윤리의

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확인하여 추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1) 대상자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심폐소생술 태도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D 대학에서 개발한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2를 사용하였고, 내용이 유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16], 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1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인자 8을 조건으로 할 때 필

요한 최소 표본수는 236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17],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적절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하여 257명을 최종 대상자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윤리적 성향

윤리적 성향은 Forsyth[6]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EPQ)를 Lee와 Ju[7]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이상주의 10문항, 상대주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0문항의 5점 척도이다. 각 성향별 점수범위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이상주의 Cronbach's $\alpha=.73$, 상대주의 Cronbach's $\alpha=.84$ 였고, Lee와 Ju[7]의 연구에서 이상주의 Cronbach's $\alpha=.85$, 상대주의 Cronbach's $\alpha=.82$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주의 Cronbach's $\alpha=.85$, 상대주의 Cronbach's $\alpha=.85$ 이었다.

2)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9]가 개발하고 Noh와 Song[18]이 번역한 것을 Seo[19]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7개 문항의 5점 척도이다.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점수범위는 27~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Seo[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3) 심폐소생술 태도

심폐소생술 태도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심리적 준비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Park과 Beak[20]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1문항의 5점 척도이다.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점수 범위는 1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Park와 Beak[2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74$ 이었다.

4)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은 Lee와 Moon[21]이 개발한 도구를 Jung[2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 3개, 인공수정 3개, 태아 진단 2개, 신생아의 생명권 2개, 장기이식 2개, 뇌사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4개 문항의 4점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14~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Moon[21]의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Jung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D 대학에서 운영 중인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윤리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후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는 설문 작성 시 배석하지 않고, 교육받은 연구보조원이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 전에 연구의 필요성, 목적, 진행 절차, 자료의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연구 참여 중도 철회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설문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대상자 보호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코드를 부여하여 연구자만이 열람하였고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3.0 WIN program을 이용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각 변수의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및 scheffe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파악하였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평균 연령은 21.85 ± 4.73 세이었다. 성별은 여학생이 197명(76.7%), 남학생이 60명(23.3%)이었고, 미혼이 251명(97.7%), 기혼이 6명(2.3%)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55명(60.3%)이었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02명(39.7%)이었다. 본인의 성격은 양향적이 124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외향적 80명(31.2%), 내향적 53명(20.6%) 순이었다. 윤리적 가치관은 확고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12명(82.5%)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54명(98.9%)이었고, 250명(97.2%)의 학생이 생명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성향은 이상주의 42.21 ± 5.18 점, 상대주의 38.91 ± 5.96 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3.72 ± 0.43 점이었고, 심폐소생술 태도는 3.83 ± 0.47 점이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전체 평균 3.17 ± 0.44 점이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태아생명 3.02 ± 0.75 점, 인공수정 3.08 ± 0.75 점, 태아진단 3.48 ± 0.51 점, 신생아생명권 3.41 ± 0.63 점, 장기이식 3.40 ± 0.57 점, 뇌사 2.72 ± 0.7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Degree of Variabl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 257)

Variables	n(%)	Ethical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CPR Attitude		Bio-medical Ethics	
		Idealism		Relativism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Age(M±SD)		21.85±4.73									
Gender											
Female	197(76.7)	42.12±5.21	-0.42	38.49±5.89	-2.09	3.70±0.42	-1.22	3.82±0.47	-0.73	3.15±0.44	-1.25
Male	60(23.3)	42.45±5.09	(.678)	40.32±6.03	(.037)	3.78±0.44	(.224)	3.87±0.47	(.466)	3.23±0.46	(.214)
Marriage											
Not Married	251(97.7)	42.18±5.17	-0.54	39.02±5.88	1.84	3.72±0.43	0.98	3.84±0.47	0.88	3.17±0.44	0.80
Married	6(2.3)	43.33±5.88	(.591)	34.50±8.24	(.066)	3.55±0.19	(.330)	3.67±0.47	(.379)	3.02±0.55	(.427)
Religion											
Yes	102(39.7)	42.03±5.38	-0.44	37.96±6.31	-2.09	3.70±0.44	-0.42	3.78±0.48	-1.40	3.21±0.49	1.23
No	155(60.3)	42.32±5.06	(.658)	39.54±5.65	(.037)	3.73±0.42	(.673)	3.87±0.46	(.162)	3.14±0.43	(.221)
Personality											
Introverted ^a	53(20.6)	42.45±5.27	1.18 (.309)	39.49±6.40	3.25	3.57±0.47	14.05	3.77±0.44	7.01	3.09±0.53	2.57 (.079)
Ambiverted ^b	124(48.2)	41.71±5.52		37.96±5.79	(.040)	3.65±0.37	(<.001)	3.76±0.45	(.001)	3.14±0.42	
Extroverted ^c	80(31.2)	42.81±4.54		40.01±5.77	(c>b)	3.91±0.40	(c>b>a)	3.99±0.48	(c>a)	3.25±0.41	
Ethical Values											
Firm	212(82.5)	42.32±5.25	0.77	38.82±6.09	-0.57	3.73±0.42	1.39	3.85±0.46	1.45	3.17±0.46	0.10
Confused	45(17.5)	41.67±4.87	(.443)	39.38±5.35	(.567)	3.64±0.46	(.116)	3.74±0.48	(.149)	3.42±0.39	(.922)
Importance of Bio-medical Ethics											
Yes	254(98.9)	42.28±5.15	1.99	38.98±5.97	1.54	3.72±0.42	2.72	3.84±0.47	1.30	3.17±0.44	2.55
No	3(1.1)	36.33±5.51	(.048)	33.67±2.08	(.126)	3.06±0.39	(.007)	3.48±0.28	(.194)	2.52±0.46	(.011)
Necessity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250(97.2)	42.19±5.21	-0.26	38.82±5.94	-1.52	3.72±0.43	1.76	3.83±0.47	0.31	3.16±0.44	-0.35
No	7(2.8)	42.71±4.39	(.793)	42.29±6.21	(.130)	3.44±0.35	(.080)	3.78±0.44	(.759)	3.22±0.50	(.725)
Experience in Witnessing Cardiac Arrest											
Yes	17(6.6)	40.76±6.05	-1.19	39.12±5.33	0.15	3.65±0.47	-0.63	3.78±0.55	-0.47	3.24±0.45	0.71
No	240(93.4)	42.31±5.11	(.236)	38.90±6.01	(.885)	3.72±0.42	(.527)	3.84±0.46	(.636)	3.16±.044	(.48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utcome Variables

(N = 257)

Variables	Mean±SD	Min~Max
Ethical Disposition		
Idealism	42.21±5.18	28.00~50.00
Relativism	38.91±5.96	22.00~50.00
Professional self-concept	3.72±0.43	2.67~4.93
CPR Attitude	3.83±0.47	2.73~4.73
Bio-medical Ethics	3.17±0.44	1.86~4.00
Right to life of fetus	3.02±0.75	1.00~4.00
Artificial abortion	3.08±0.75	1.00~4.00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48±0.51	2.00~4.00
Right to life of neonate	3.41±0.63	1.00~4.00
Organ transplantation	3.40±0.57	1.00~4.00
Brain death	2.72±0.70	1.00~4.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윤리적 성향 이상주의는 생명의료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42.28점)가 그렇지 않은 경우(36.33점)보다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9, p=.048$). 윤리적 성향 상대주의는 남성(40.32점)이 여성(38.49점)보다 높았고($t=-2.09, p=.037$),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39.54점)이 가진 사람(37.96점)보다 높았으며($t=-2.09, p=.037$), 성격이 외향성인 경우(40.01점)가 보통인 경우(37.9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25, p=.040$). 전문직 자아개념은 성격이 외향성(3.91점), 보통(3.65점), 내향성(3.57점) 순으로 높았으며 ($F=14.05, p<.001$), 생명의료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3.72점)가 그렇지 않은 경우(3.06점)보다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2, p=.007$). 심폐소생술 태도는 성격($F=7.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외향성이 높았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생명의료윤리 중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5, p=.011$).

4. 대상자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성향 중 이상주의는 상대주의($r=.43, p<.001$), 전문직 자아개념($r=.46, p<.001$), 심폐소생술 태도($r=.37, p<.001$), 생명의료윤리의식($r=.5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윤리적 성향 중 상대주의는 전문직 자아개념($r=.25, p<.001$), 심폐소생술 태도($r=.30, p<.001$), 생명의료윤리의식($r=.2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은 심폐소생술 태도($r=.60, p<.001$), 생명의료윤리의식($r=.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심폐소생술 태도는 생명의료윤리의식($r=.2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5.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생명의료윤리의 중요성을 더미변수 처리하고, 윤리적 성향의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의 자기

Table 3. Correlation among Ethical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PR Attitude, and Bio-medical Ethics (N=257)

Variables	Idealism	Relativism	Professional Self-Concept	CPR Attitude	Bio-medical Ethics
	r(p)				
Idealism	1	.43 ($<.001$)	.46 ($<.001$)	.37 ($<.001$)	.54 ($<.001$)
Relativism		1	.25 ($<.001$)	.30 ($<.001$)	.28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1	.60 ($<.001$)	.39 ($<.001$)
CPR Attitude				1	.26 ($<.001$)
Bio-medical Ethics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the Bio-medical Ethics

(N = 257)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t	p	Tolerance	VIF
Bio-medical Ethics	Idealism	.04	6.62	<.001	.69	1.47
	Relativism	.01	0.31	.759	.76	1.32
	Professional Self-Concept	.18	1.96	<.001	.71	1.41
	CPR Attitude	.12	1.66	.098	.73	1.37
	Importance of Bio-medical Ethics*	.04	0.85	.397	.86	1.17
$R^2 = .32$, Adjusted $R^2 = .30$, $F = 23.02$ ($p < .001$)						
Durbin-Watson = 1.96						

* Ref. group: Yes

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분산 확대지수(VIF)는 1.17~1.47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이 없었으며, Durbin-Watson 결과 1.96으로 2에 가까워 종속변수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문직 자아개념($\beta = .18$)과 윤리적 성향의 이상주의($\beta = .04$)였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윤리적 성향의 이상주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아지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0.0%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3.02$,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심폐소생술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3.17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Je[23]의 연구에서는 3.10점,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Kim[24]의 연구에서는 2.95점이었다. 본 연구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가 선행 연구들보다 높은 이유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서 개발한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격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을 제공한 것에 기인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과 Jeong[25]은 간호대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에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 Choi 등[26]의 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의료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다양한 상황에서 취약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책임을 고려할 때 윤리적 원칙과 고려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 현상은 매우 복잡하여 태아 생명, 유전자 검사, 장기 이식 및 뇌사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환자 중심의 간호능력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인식 및 해결 능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하부영역별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살펴보면, 태아진단과 신생아 생명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각각 3.48점과 3.41점이었다. 반면에, 뇌사는 가장 낮은 2.72점이었다. Kim과 Kim[24]의 연구에서도 신생아 생명권과 장기이식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인공임신중절과 안락사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서 신생아 생명권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취약계층, 특히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공된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소생술과 생명유지에 관한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 영역별 구체적인 사례를 개발하여 교육 내용에 접목함으로써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생명의료윤리 하부영역별 주제에 대한 질적 연구는 생명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윤리적 성향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이상주의 점수가 42.21점으로 상대주의 점수 38.91점보다 높았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성향을 측정한 유사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 분석은 어렵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에 속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윤리적 성향 중 이상주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 Forsyth[6]의 윤리적 성향 점수는 개인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윤리 교육을 접하게 된다. 이 교육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정의 및 신뢰와 같은 이상적인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은 간호학개론 교과목 수료와 본교에서 개발한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이상주의적 윤리성향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은 임상환경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5]. 결과적으로 그들의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력과 윤리적 문제해결능력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를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설명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한

Lim과 Park[14]의 연구에서는 2.68점, Choi와 Park[28]의 연구에서는 2.62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현장의 전문가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의미한다[9,18]. 특히 직업적 정체성, 역할, 가치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직업적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hoi와 Park[28]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의식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윤리적 고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호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심폐소생술 태도는 3.83점으로 높았다. 이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 있다[12].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생명의료윤리의 관계를 측정한 몇몇 연구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29,30].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생명을 구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과 일치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수행과 윤리적 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첫째,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윤리적 원칙과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윤리적 신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이상주의적 윤리성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

용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지식을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간호사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생명의료윤리의 원칙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그리고 심폐소생술 태도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기반 학습, 토론 및 문제 해결 활동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생명의료윤리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윤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내에서 이론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수학습전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촉진하고 향후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Moon YI, Park HR, Tak YR, Kim MA, Kim SA, Park KS, et al. A study on the clinical nurse's ethical valu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3;9(4):541-557.
2. Yang JS, Koo MJ. Bioethic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centering to the case of Daegu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2009;10(1):1-16.
3. Joung DS. TA theoretical literature investigation about life dignity and life ethic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eses Collection. 2012;47:329-337.
4. Kim TK, Bak YG.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3):1-13.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3.15>.
5. Bae JH.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its related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1):271-278. <https://doi.org/10.21184/jkeia.2018.1.12.1.271>
6. Forsyth DR.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39(1):175-184. <https://doi.org/10.1037/0022-3514.39.1.175>
7. Lee HK, Ju OJ.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thical type on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5;15(3):497-504. <http://doi.org/10.13065/jksdh.2015.15.03.497>
8. Kim SY.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ethical propensity on the willingness to performance of private patient information prot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22;22(5):443-450. <https://doi.org/10.13065/jksdh.20220050>.
9. Arthur D.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1995;15(5):328-335. [http://doi.org/10.1016/S0260-6917\(95\)80004-2](http://doi.org/10.1016/S0260-6917(95)80004-2)
10. Jeon MK.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7(4):119-129. <https://doi.org/10.12811/kshsm.2013.7.4.119>

11. Kim EJ. The effects of repeat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raining using smart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018;19(2):261-269.
<https://doi.org/10.5762/KAIS.2018.19.2.261>
12. Yoon MO. The effects and continuity of AHA basic life support(BLS)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1):737-747.
13. Kim JI, Hwang SW, Kang JY. The effects of standardized BLS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subjective norm, self efficacy, and intention of CPR in college students :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9; 3(4):49-59.
<https://doi.org/10.34089/jknr.2019.3.4.49>
14. Lim MH, Park CS.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7):4423-4431.
15. Kim JG, Oh SM, Cheon EY, Yoo JH.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676-683.
<https://doi.org/10.5762/KAIS.2016.17.1.676>
16. Chong YR, Lee YH. Affecting factors of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4):389-397.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4.389>
17. Lim HJ. Sample size determination in dental research.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2014;52(9):558-569.
18. Noh CH, Song KY.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26(1):94-106.
19. Seo BM.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Busan; Inje University; 2014.
20. Park SK, Baek JG.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targeting student in major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21;16(1):335-339.
<https://doi.org/10.21097/ksw.2021.02.16.1.335>
21. Lee YJ, Moon IO.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short form biomedical ethics scale. *Global Health & Nursing*. 2015;5(2):67-77.
22. Jung YJ.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perception of hospice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master's thesis]. Busan; Kosin University; 2018.
23. Kim JS, Je NJ. The influence of moral behavior,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and death attitudes on hospice awareness in nursing freshm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19(1):275-284.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75>
24. Kim JY, Kim JR.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19(4):435-441.
<https://doi.org/10.14400/JDC.2021.19.4.435>
25. Kim KA, Jeong GS.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on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 20(2):240-249.
<https://doi.org/10.5762/KAIS.2019.20.2.240>
26. Choi YS, Jeong GS, Rayborn M. Biomedical ethic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effect on awareness and application of nursing code of ethic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moral sensitivity.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3):214-224.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14>.
27. Kim HO, Moon M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ethics education on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0; 37(6):1706-1717.
<https://doi.org/10.12925/jkocs.2020.37.6.1706>.
28. Choi DW, Park YM. The effect of nurse's professional self-concept, sense of ethics on the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0;18(6):129-138.
<https://doi.org/10.22678/JIC.2020.18.6.129>.
29. Kim MY, Mun MY. Impac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ethical values in nursing student on their attitudes towards DNR.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18;21(4):115-123.
<https://doi.org/10.14475/kjhpc.2018.21.4.115>
30. Jang JI. Experiences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cerning do-not-resuscitate orders among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2019;22(3):234-254.
-